

<2019. 4. 6. 시행 국가직 9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1, 2			
고대	8	14		
중세	3	6		12
근세	18			5, 16
근대태동기		10		
근대개항기	13, 17	7		
일제강점기	4, 9			19
현대	20			
시대통합				11, 15

< 총 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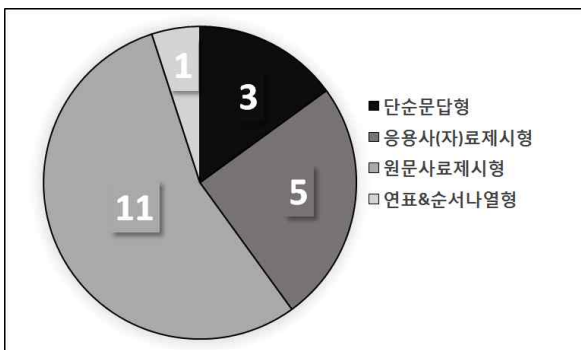
2019년 국가직 9급 한국사는 작년 4월 국가직 9급과 비교하면 매우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상반기 서울시 9급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도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문항 유형으로는, 단순문답형이 3문제, 자료제시형이 16문제(원문사료 11문제, 응용자료제시 5문제), 순서나열형은 1문제였다. 문항 유형은 작년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자료제시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 출제되었어 작년 국가직 9급과 같은 비율로 출제되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가 2문제, 고대사가 2문제, 중세사와 근세사가 각각 3문제씩, 근대태동기에서 1문제 출제되어 비교적 고르게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근대와 일제 각각 3문제씩 출제되었고 현대사에서는 1문제만 출제되었다. 또한 시대통합형 문제도 2문제나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0문제, 문화사가 6문제 출제되었으며, 경제·사회사에서는 경제사만 4문제 출제되고 사회사는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통합형 문제는 문화사에서만 2문제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2~3문제 가량 출제되었다. 지엽적이고 낯선 내용보다는 사료나 선지에 함정을 파놓은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시정 전시과의 원문 사료를 제시한 6번 문제,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에 대해 물어본 15번 문제 등이 있었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선사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중
2	선사	부여와 동예	하
3	중세 정치	고려 인종	중하
4	일제 정치	3·1 운동 이후의 정치 상황	중
5	근세 문화	조선 성종 때의 편찬사업	중
6	중세 경제	시정 전시과	중상
7	근대 경제	근대시기 일제 경제침탈	중
8	고대 정치	발해 무왕	중하
9	일제 정치	한국 독립군	중
10	근대기 경제	조선 후기의 경제	중
11	통합형	단군에 대한 인식 변화	중
12	중세 문화	삼국유사	중하
13	근대 정치	동학 농민 운동	중
14	고대 경제	고대의 경제 상황	중
15	통합형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상
16	근세 문화	서원	중하
17	근대 정치	근대 조약	중
18	근세 정치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	중
19	일제 문화	박은식	중하
20	현대 정치	정부수립과정	중하

< 변별력 있는 문항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6	시정 전시과	시정 전시과의 원문 사료를 제시하면서 역분전과 헷갈리게 한 문제이다. 사료 원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지 못했다면 함정에 빠지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15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다면 오답 선지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출제 문항 유사 연계 분석
(라책형 기준 / 2019대비 교재, 강의 기준)

문항 번호	교재 / 시험명	유사여부
1	2019년 해법국사 1권, 29쪽, 33쪽, 35쪽, 36쪽	
	2019년 필기노트, 9쪽, 10쪽	
	2019년 해법 교재 202쪽 실전 02번	출제 주제 유사
	2019년 동형 교재 6회 2번	주제 선지 적중
2	2019년 해법국사 1권, 51쪽, 52쪽, 56쪽, 57쪽	
	2019년 필기노트, 13~14쪽, 15쪽	
3	2019년 동형 교재 7회 2번	출제 주제 적중
	2019년 해법국사 1권, 222쪽, 224쪽	
	2019년 필기노트, 47쪽	
4	2019년 해법 교재 53쪽 2-4	출제 주제 유사
	2019년 해법국사 2권, 786쪽, 789쪽, 831쪽	
5	2019년 필기노트, 149쪽, 156쪽, 157쪽	
	2019년 해법 교재 158쪽 3-4	주제 선지 적중
6	2019년 해법국사 1권, 437쪽, 440쪽, 444쪽	
	2019년 필기노트, 85쪽, 86쪽, 87쪽	
	2019년 동형 교재 9회 11번	출제 사료 적중
7	2019년 해법국사 1권, 258~259쪽	
	2019년 필기노트, 53쪽	
	2019년 동형 교재 12회 5번	주제 선지 적중
	2019년 동형 프린트 파일널모의고사 6번	주제 선지 적중
8	2019년 해법국사 2권, 679쪽, 680쪽, 709쪽	
	2019년 필기노트, 136쪽	
9	2019년 동형 프린트 4회 15번	주제 선지 적중
	2019년 해법국사 1권, 106~108쪽	
10	2019년 필기노트, 25쪽	
	2019년 동형 프린트 듀얼 1회 5번	주제 선지 유사
11	2019년 해법국사 2권, 806~807쪽	
	2019년 필기노트, 154쪽	
12	2019년 동형 교재 9회 18번	출제 주제 유사
	2019년 해법국사 1권, 484쪽, 513쪽	
13	2019년 필기노트, 103쪽	
	2019년 동형 교재 5회 13번	출제 주제 유사
14	2019년 해법국사 1권, 305~306쪽, 566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61쪽, 112쪽	
15	2019년 동형 교재 12회 6번	출제 주제 유사
	2019년 해법국사 1권, 304~306쪽, 567쪽	
16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61쪽, 112쪽	
	2019년 동형 교재 12회 6번	주제 선지 적중
17	2019년 해법국사 2권, 644~648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125쪽	
18	2019년 동형 교재 7회 15번	주제 선지 유사
	2019년 해법국사 1권, 133쪽, 135쪽	
19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29쪽	
	2019년 동형 교재 8회 6번	주제 선지 유사
20	2019년 해법국사 1권, 310~312쪽, 582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38쪽, 63쪽, 115쪽	
21	2019년 해법 교재 266쪽 2-5	주제 선지 적중
	2019년 해법국사 1권, 356~357쪽, 416쪽	
22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84쪽	
	2019년 해법 교재 242쪽 3-4	주제 선지 적중
23	2019년 해법국사 2권, 615쪽, 618~619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121쪽	
24	2019년 해법 교재 125쪽 2-5	주제 선지 유사
	2019년 해법국사 1권, 350~351쪽	
25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68쪽	
	2019년 동형 교재 3회 8번	주제 선지 유사
26	2019년 해법국사 2권, 846~848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158쪽	
27	2019년 해법 교재 3회 17번	주제 선지 적중
	2019년 해법국사 2권, 875~884쪽	
28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161~164쪽	
	2019년 해법 교재 203쪽 실전 06번	주제 선지 적중

정답(나책형 기준)

1. ③	2. ④	3. ③	4. ③	5. ④
6. ①	7. ①	8. ④	9. ③	10. ①
11. ③	12. ②	13. ④	14. ①	15. ③
16. ④	17. ①	18. ②	19. ②	20. ②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은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1.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

정답 : ③

③ 강화도 부근리에서는 청동기의 무덤 양식인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탁자식 고인돌은 평평하고 넓은 돌을 이용하여 네모 모양의 널방을 만든 후 바닥에 시신을 두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무덤 양식으로 이를 통해 당시 지배층인 군장이 소유한 부와 권력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분석 : ①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다. ② 창원 다호리는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지로, 이곳에서는 오수전과 붓 등이 출토되었다. ④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구석기 문화, 29쪽 / 신석기 시대의 생활, 33쪽 / 청동기의 보급과 생활, 35쪽 / 철기의 사용, 36쪽)

(2019년 필기노트, 구석기 시대의 생활, 9쪽 / 신석기 시대의 생활, 9쪽 / 청동기와 철기의 보급, 10쪽 / 청동기철기 시대의 생활, 10쪽)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 ① (가)-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② (가)-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 ③ (나)-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 ④ (나)-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2. 여러나라의 성장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부여, (나)는 동예이다. ④ 동예에서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으로 변상하도록 하였다.

오답분석 : 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②③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부여, 51쪽 / 고구려, 52쪽 / 옥저와 동예, 56쪽 / 삼한, 57쪽)
(2019년 필기노트, 부여, 13~14쪽 / 초기 고구려, 14쪽 / 옥저와 동예, 15쪽 / 삼한, 15쪽)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 ③ 서경에 대화공을 짓게 하고 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3. 고려 인종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고려 인종 때 금나라가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자겸과 척준경이 금을 섬기는 데 찬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국왕은 고려의 인종이다. ③ 인종 때 서경 세력인 묘청·정지상 등은 국왕에게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 천도를 강요하며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게 하였다. 또한 칭제 건원(稱帝建元), 즉 황제가 되어 독자의 연호를 쓰면 금나라가 항복을 하고 주변의 여러 국가가 고려에 복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답분석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된 것은 고려 후기인 충렬왕 때부터이다. ② 성리학은 고려 후기인 충렬왕 때부터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④ 최우 집권기(고종) 때의 일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여진의 침입 222쪽 /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모습 224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의 대외 관계 47쪽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47쪽)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중략)… 조선 민족은 독립항쟁을 즐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4. 3·1 운동 이후의 정치 상황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의 3·1 운동을 일컫는다. ③ 독립의군부는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던 임병찬이 고종 황제의 비밀 지령을 받아 의병들을 규합하여 결성한 단체로, 1912년에 조직되었다.

오답분석 : ① 1923년의 일이다. ② 1926년의 일이다. ④ 이상재, 이승훈, 윤치호, 김성수, 송진우 등이 조선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한 것은 1922년의 일이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1910년대 국내의 민족 운동, 786쪽 / 민족 유일당 운동, 789쪽 / 민립대학 설립운동, 831쪽 / 농민운동, 839쪽) (2019년 필기노트, 1910년대 국내의 민족 운동, 149쪽 / 민족 유일당 운동, 149쪽 / 민립대학 설립운동, 156쪽 /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157쪽)

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 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5. 조선 성종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성상’은 조선 성종이다.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 [오례(五禮)]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여 성종 때 편찬한 의례서이다.

오답분석 : ① ‘동국병감’은 문종 때 김종서의 주도하에 편찬된 병서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하였다. ②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저술한 책으로 천자문을 익히고 난 후의 학동들이 배우는 초등 역사 교재이다. ③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한 책으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역사서와 통치 기록, 437쪽 / 윤리의례서와 법전의 편찬, 440쪽 / 인쇄술의 발달과 병서 편찬, 444쪽)

(2019년 필기노트, 윤리서와 의례서, 85쪽 / 역사서와 통치기록, 86쪽 / 병사·화약무기·조선, 87쪽)

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6. 시정 전시과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가)에 들어갈 토지제도는 시정 전시과이다. 경종 원년에 비로소 직관·산관의 각 품(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官品)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① 시정 전시과는 사색 공복 등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토지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오답분석 : ② 문종 때 제정된 경정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 지방에 한하여 지급된 토지제도로는 과전법 등이 있다. ④ 역분전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258~259쪽)
(2019년 필기노트, 전시과 제도, 53쪽)

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발발	을사조약 강제 체결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전개	

-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7. 근대시기, 일제의 경제침탈

정답 : ①

을미사변의 발발은 1895년의 일이고,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은 1905년의 일이며,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것은 1908년의 일이다. ① 서울의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1898년의 일로, (가) 시기에 속한다.

오답분석 : ② 1911년의 일이다. ③ 함경도 관찰사인 조병식이 방곡령을 내린 것은 1889년의 일이다. ④ 보안회가 조직된 것은 1904년의 일로, (나) 시기가 아니라 (가) 시기에 속한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항일 의병 전쟁의 시작, 679쪽 /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과 을사의병, 680쪽 / 정미의병과 의병 전쟁, 683쪽 / 정부와 민간의 식산 흥업 노력, 709쪽 / 이권수호운동과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711쪽)
(2019년 필기노트, 경제적 침탈 저지 운동, 136쪽)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②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8. 발해 무왕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 왕은 발해의 무왕이다. ④ 발해 무왕 때 중국 산둥 지방의 등주에 장문휴를 필두로 하는 수군을 보내 공격하였다.

오답분석 : ① 발해 고왕(대조영) 때의 일이다. ② 이 시기는 9세기 발해의 내분기로, 신라 헌덕왕이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③ 대흥은 발해 문왕 때 사용된 연호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발해의 건국과 발전, 106~108쪽)
(2019년 필기노트, 발해의 건국과 발전, 25쪽)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웅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9. 한국독립군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한국 독립군이 사도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것에 대한 내용이다. ③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로, 쌍성보·대전자령·경박호·사도하·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오답분석 : ① 조선 혁명군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끈 부대이다. ② 한국 독립군은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30년대에 활약하였다. ④ 조선 의용대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806~807쪽)
(2019년 필기노트, 한중 연합 작전 154쪽)

10. 밑줄 친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퍼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④ ㉣ - 발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였다.

10. 조선 후기의 경제

정답 : ①

① 조선 후기 정조 때 신해통공을 반포함에 따라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오답분석 : ② 담배는 인삼 등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상업 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조선 후기에 강필리, 김장순, 서유구 등은 고구마 재배법을 깊이 연구하여 ‘감저보’, ‘감저신보’, ‘종저보’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④ 건종법에 대한 내용으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 밭고랑에 곡식을 심는 이른바 건종법이 보급되어 한해와 냉해에 유리해져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었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탕평 정치의 전개, 484쪽 / 농민 경제의 변화, 513쪽)
(2019년 필기노트, 조선 후기의 농업, 103쪽)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④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11. 단군에 대한 인식

정답 : ③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이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다루고 있다.

오답분석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였다.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④ 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따르면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기원전 2333년을 기준으로 하여 1919년을 ‘조선건국 4252년’이라고 표현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고려 역사서의 편찬, 305~306쪽 / 국학 연구의 확대, 566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고려의 역사서, 61쪽 / 조선 후기 역사 연구, 112쪽)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중략)…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 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12. 삼국유사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고려 말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의 서문이다. ② ‘삼국유사’는 불교사 중심의 고대 여러 민간 설화들을 수록하였다.

오답분석 : ①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에 대한 설명이다. ③ ‘동사강목’ 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삼국사기’ 등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 고려 역사서의 편찬, 304~306쪽 / 국학 연구의 확대, 567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고려의 역사서, 61쪽 / 조선 후기 역사 연구, 112쪽)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13. 전주 화약 체결 이후의 역사적 사실

정답 : ④

(가)는 1894년 5월에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체결한 전주 화약이다. ④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1894년 9월에 봉기하여 10월에 논산에서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오답분석 : ① 황토현 전투는 1차 농민 봉기 당시인 1894년 4월에 발발하였다. ② 조병갑의 만석보 수탈 등으로 인하여 1894년 1월 고부 농민 봉기가 발발하였다. ③ 안핵사 이용태는 1894년 1월에 일어난 고부 농민 봉기의 진상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는데, 이후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탄압하였다(3월).

(2019년 해법국사 2권,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644~648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125쪽)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호 ‘신라’ 확정	9주5소경 설치	대공의 난 발발	독서삼품과 실시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④ 청주(靑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14. 신라 중대의 경제 상황

정답 : ①

9주 5소경은 신문왕 때 설치되었고, 대공의 난은 혜공왕 때 발발하였다. 따라서 (가) 시기는 신문왕~혜공왕 시기이다. ①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한 것은 성덕왕 때의 역사적 사실이다.

오답분석 : ② 동시전이 신설된 것은 지증왕 때이다. ③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제정되었다. ④ 신라 하대 소성왕 때의 역사적 사실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토지 제도의 정비, 133쪽 / 산업 정책과 대외 무역, 135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고대의 토지 제도, 29쪽)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되었다.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15. 우리나라 문화유산

정답 : ③

③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니라 미륵사지 석탑에서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함이 발견되었다.

오답분석 : 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②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을 본따서 만들었다. ④ 금산사 미륵전은 외형상으로는 다층 건물이지만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건축과 탐, 177쪽 / 건축과 조각, 310~312쪽 / 건축의 변화, 582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고대의 탐, 38쪽 / 건축과 조각, 63쪽 / 조선 후기 건축, 115쪽)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 (중략) ...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④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16. 서원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주세붕이 최초로 설립한 서원이다. ④ 서원은 학문 연구 및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지방에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오답분석 : ① 향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서당 등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다. 성균관에서 시험을 치러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은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 356~357쪽 / 향약과 유교 윤리의 보급, 416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향약과 서원, 84쪽)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 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해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 되어 있었다.

(가)

(나)

- ① 조·일 무역규칙 조·미 수호통상조약
- ② 조·일 무역규칙 조·러 수호통상조약
- ③ 조·일 수호조규부록 조·미 수호통상조약
- ④ 조·일 수호조규부록 조·러 수호통상조약

17. 근대의 조약들

정답 : ①

(가)는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이다. 조일 통상 장정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항세 규정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나)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에 체결되었고 거중조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홍장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강화도 조약의 체결, 615쪽 /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 618~619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체결, 121쪽)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 을 찬진하다.
-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를 올리다.
-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 를 편찬하다.

- ①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②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③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④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18.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정답 : ②

② 이조정랑(5품)과 좌랑(6품)은 삼사(홍문관, 사간원, 사헌부)의 인사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둘을 합쳐 이조전랑이라고 불렀다.

오답분석 : ① 사간원이 아니라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승정원이 아니라 사헌부와 사간원(양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홍문관이 아니라 교서관에 대한 설명이다.

(2019 해법국사 1권,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 350~351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68쪽)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찌서이며 …(중략)…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① ‘조선열’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주식·부주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 ④ 『독사신문』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19. 박은식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박은식이 저술한 ‘유교구신론’의 일부이다. ② 박은식은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답분석 : ①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다. ③ 김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신채호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한국사의 연구, 846~848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국학 운동의 전개, 158쪽)

20.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가)→(라)→(다)
- ② (나)→(다)→(가)→(라)
- ③ (다)→(가)→(나)→(라)
- ④ (다)→(나)→(가)→(라)

20.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정답 : ②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하여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5일에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1945년 12월에 개최되어서, 여기에서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과 최고 5년 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다.
(가) 국내 좌우익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자,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1946년 7월에 좌우 합작 위원회가 설립되었으
며, 여기서 1946년 10월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1948년 4월에 김
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을 중심으로 남·북 협상이 개최되었
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8·15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875~884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8·15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161~164쪽)